
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2년 3월 16일(수) 총 2매				
담당 부서	노인정책과	담당자	• 장사문화팀장 남미정 ☎440-2831 • 담당자 이두희 ☎440-2832			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화장 건 수 평소보다 36% 이상 대폭 늘린다

- 환절기 및 코로나19로 사망자 증가 ... 화장수요 대책 마련 위해 -
 - 하루 72건에서 98건으로 확대, 인천시민 대상은 평소보다 39건 늘려 -

최근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인천시가 화장시설 운영을 대폭 확대한다.

인천광역시는 환절기 등 계절적 영향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에 따라 화장로 회차 특별증설 및 화장장 탄력운영을 통해 1일 화장 건 수를 평소 72건에서 98건으로 늘린다고 밝혔다.

최근 코로나19 사망자 등 가파른 사망률 증가추세로 인해 전국적으로 화장시설 예약이 조기마감되고, 화장시설을 구하지 못한 유족들이 4~5일장으로 늘리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.

인천시의 경우 올해 2.1~3.13. 화장 건 수는 2,081건으로, 지난해 같은 기간 1,668건에 비해 25%가 증가했다.

이에 따라 시는 이달 8일,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의 가동시간을 연장

하고 회차를 확대했다. 또한 부천, 김포 등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우선 예약제를 중단함으로써,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총 25건을 추가 운영하는 등 화장수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로 부족문제가 점차 심해지자 시는 사태의 신속한 해결과 시민불편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16일부터는 일반 화장을 추가 증설하는 한편, 개장유골 및 코로나 선화장을 일시적으로 축소해 일반 화장 14건을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.

평소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에서는 일 평균 72건의 일반 화장을 실시해 왔으나, 이달 8일과 16일 2회에 걸쳐 인천시민 대상으로 총 39건을 추가로 늘림으로써 화장 건 수가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36% 이상 늘어나게 됐다.

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“최근 화장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 및 2차에 걸쳐 화장시설을 확대하고 특별 회차를 증설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” 며 “앞으로도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적극 대응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